

투데이칼럼

북한 스마트폰의 실체

북한 스마트폰의 실체가 충격적이다.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북한의 감시 체계가 문제다. 영국 BBC방송이 지난해 북한에서 밀반출한 스마트폰을 분석해 최근 보도했다.

스마트폰이 주민 감시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다른 표현으로 자동 변환되는 기능을 핵심적인 감시 수단으로 지목했다. '오빠'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동지'라는 단어로 바뀐다.

'오빠'라는 단어 입력 시 '친형제나 친척 간에만 사용 가능'이라는 경고도 뜬다. 한국을 뜻하는 '남한'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괴뢰지역'으로 바뀐다. 북한이 한국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다.

지난 2023년, 북한은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해 남한 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에는 '괴뢰말투 제거 프로그램' 설치 의무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에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BBC는 해당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약 5분마

다 캡처하고, 당국만 열어볼 수 있는 비밀 폴더에 저장한다고도 전했다.

해당 기능들이 어렵고 복잡한 기술은 아니지만, 감시 목적일 것이라는 점에는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한다.

북한의 인민들이 외부 정보 접촉이나 다른 일들을 못하게 시스템적으로 막는 거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화된 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과학화와 현대화를 강조하면서부터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 제작을 지시한 '아리랑 손전화'를 시작으로 평양, 푸른하늘, 진달래, 삼태성 등 다양한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됐다. 그런데 정작 이들 스마트폰에선 핵심적인 인터넷 연결 기능이 빠져있다.

북한 스마트폰 '평양 2418' 걸 모습은 스마트폰과 비슷하지만, 외부 인터넷 접속 기능은 완전히 차단돼 있었다.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연결될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셈이다.

이동 전화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정보 생산과 유통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그에 맞춰서 정보 통제를 할 수 있는 감시 기술을 계속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다.

감시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다. 하나는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 자체 운용의 감시 이용 기능이다. 그 다음에 콘텐츠 감시가 있다. 콘텐츠 감시는 외부로부터 임의로 가져온 영상 등을 여기에 반입 못 하게 막는 것이다.

우리는 USB나 다른 틀을 꽂고

뽐을 수 있다. 그걸 다 막고 블루투스로 주고받는데 그것도 안 되게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스마트폰 감시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론 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개개인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갈 수 있는 스마트폰의 특성을 두려워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도자에게 불만이 있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통제의 기술을 많이 쓰고 있다.

북한의 디지털 감시는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 역시 감시를 피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생존 규칙을 갖는다.

예민한 주제는 은어로 표현하고 접경지역에서는 중국 등쪽 차명폰으로 짧게 통화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시 망을 우회하는 경로나 기법이 은밀히 공유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 때부터 정보기술 교육을 소학교 때부터 실시했다.

이들은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난 세대들이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나 앱들만 사용하라고 했을 때 답답함을 느낀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15톤 버스를 끌어라”



프로 스트롱맨 마틴스 리시즈(Martins Lids)가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피어 360' (Pier 360) 비치 축제 개막 행사에서 무게 약 15톤의 전기버스를 끌고 있다. 그는 이 버스를 9m가량 끌었다.

여성 최초 '1마일 4분 이내 주파' 도전한 키피에곤



페이즈 키피에곤(케냐)이 지난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사를레티 경기장에서 1마일(약 1.6km)을 4분 이내에 주파하는 최초의 여성 기록에 도전해 골인하고 있다. 1500m에서 금메달을 세 번이나 따낸 키피에곤은 4분06.42초를 기록하며 목표는 이루지 못했으나 본인의 종전 세계 기록 4분07.64초를 1초 이상 단축했다.

사설

인구 10만 넘긴 완주군

도내 대부분 지역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은 바로 완주군이다. 최 모씨는 지난 달 완주군 이서면으로 전입했다. 결혼과 함께 신혼집을 이곳에 마련한 것이다.

자신과 아내의 직장이 있는 전주와 김제 가운데 위치해있고, 전주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도 신혼부부로서는 큰 장점이었다. 완주는 전주와 다른 여러 시도들을 지리적으로 잇고 있는 중간 위치에 있다. 완주군은 최근 인구 10만 명을 돌파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전주의 인구가 정체되면서 완주군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는데, 3년 전부터 반등하면서 지난 달 말 드디어 1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2023년에는 1년 사이 5천여 명이 늘면서 전국 군 단위 지역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인구 증가의 요인으로는 우선 일자리가 꼽힌다.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가 완관을 앞두는 등 완주 신단에 기업 유치에 이어졌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형성된 혁신도시 등이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완주군의 취업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36%가량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취업자 증가율 상위 20개 지역 안에 완주군이 이름을 올렸다.

상위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 신도시이거나, 수도권에 가까운 산업 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리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완주군은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를 빙 둘러싸고 있다. 2023년부터는 삼봉지구와 운곡지구 등 신규 주거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인근 지역의 인구가 유입됐다.

소비쿠폰 최대 52만원까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20조 원 정도 돈을 풀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최대 52만 원까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더 많이 받는다. 보편 지급이나, 선별 지급이나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의 선택은 결출이었다.

전 국민에게 주지만 차등을 두었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그 이하는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이다. 대상자 수로 보면, 국민의 88% 정도가 25만 원이다. 인구소별지역인 84개 시·군 주민은 2만 원을 더 받는다.

1인당 최소 15만 원, 최대 52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서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쿠폰 형태는 세 가지다. 지역사

람상품권, 즉 지역별 지역화폐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 평소 쓰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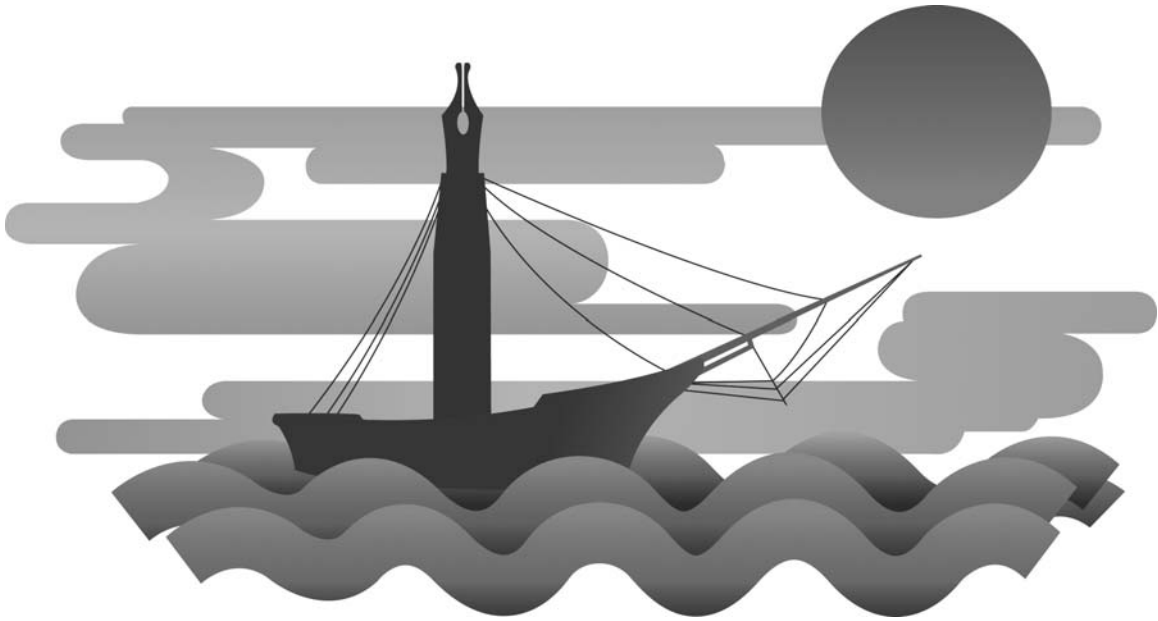
점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이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데, 유흥업소, 사행업종은 제외한다. 은누리상품권 결제가 안 됐던 점통시장 바깥 소상공인의 손해가 클 거로 예상된다.

소득이 같아도 가족 수에 따라 해당되는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처럼 건강보험료를 기본으로 하되, 가족 수와 재산 등을 일부 반영해 상제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끝나야 지급 시작 시점도 정해진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늦어도, 2주일 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국회 통과 시점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르면 7월 중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